



2012년5월1일~9월30일까지 간디학교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CMS 등으로 후원해 주신 소중한 마음들은 학교운영비(학생복지 및 학교시설)와 대안교육연대 지원금, 홈스쿨네트워크 운영비, 다른 대안 학교 지원금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썼습니다. 앞으로도 후원해 주신 분들의 뜻에 맞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521분/ 2381건/ 33,472,900원

이기하 문신호 박인옥 김용규 김남식 정태균 신윤숙 이승욱 이승연 조창아 이종주 이진석 최용 지연철 김문선 이윤승 박영선 하승렬 최종현 최준석 강민택 이혜림 김지식 최문택 박용호 김지연 전영복 정병희 강용중 이경란 최해만 최영준 최인화 안주연 유수진 정성현 라성호 박영희 이무섭 김유태 전수미 한현 김정미 우기백 김효진 김광태 안항석 신현덕 공치성 김문환 전종철 윤도희 강상진 하두철 안정환 이미경 김주연 홍수연 김명철 최선희 강영상 진성기 전미영 손현석 이강훈 하영아 박영자 정미영 유중선 전국진 김문석 이종현 유향옥 유한목 이강연 윤숙경 백승훈 이양환 박형규 강경선 노상규 양후남 최경우 최미애 조경숙 김용필 최재민 김희고 양정숙 김경희 김영희 오지혜 마석훈 금상호 이현주 노희석 김선희 박채영 이준용 최귀중 장규식 손병근 한광덕 노경수 김은숙 강순자 김윤찬 이은신 문성룡 정명숙 박정기 이호창 정문자 최재훈 강신현 구경란 김신화 문현주 라기호 김명희 진상정 남우용 김란경 이요훈 이성록 정난주 서진숙 손동훈 최도연 소언섭 양병만 현은영 박경미 이상현 조상희 박현준 조주환 김구환 신청삼 김현식 조철연 강수돌 배필늘 권영숙 임영빈 전완기 정영수 진은주 정한경 이정태 박혜선 구자민 윤민호 성정미 강지혜 오현욱 임진희 김영삼 박창순 김경자 김진우 진정란 유연열 김재구 빈종일 정성욱 조경희 고지철 손영미 이도중 남궁원 최은미 정재윤 김유신 양수연 김현진 차영순 최상윤 임병포 허영순 강창석 박종국 김경민 조봉석 황국덕 김용철 하태광 노선영 김평호 윤한식 이재성 이주엽 이상훈 김영우 안춘자 천희진 김은정 이수진 노윤희 김갑유 박봉규 김상덕 김문혁 김기만 박경현 이한진 오병갑 강승구 정영환 김계숙 윤은주 고수원 김명혜 김명숙 김명구 박미경 황달남 진영승 원현구 이보완 이종태 김미정 박성열 이영호 김중우 한용택 오강순 채신자 염계선 이미경 김희균 유인수 김극준 김명희 신선영 전완기 백명기 한상철 이흥구 유경오 이정석 강용택 유춘자 이강인 박진수 박기석 권도오 오익문 김창석 김경순 박정림 강기갑 김옥주 이수경 이수영 윤호선 윤보영 정희정 이오순 신현정 권숙영 이선애 이수진 이승민 임은숙 장미자 김재권 백동훈 백동민 허성희 김용규 마미경 김준희 조숙자 김영숙 김현일 조찬규 신관수 김진우 홍창식 류명옥 신주영 장희숙 이승섭 박성수 황명숙 오보환 유준하 백미숙 김경민 노경숙 이명조 정지은 김은영 이명희 박용규 김수갑 이화숙 김지영 박환홍 김성태 김상의 박영문, 김숙정 정종미 어통수산(주) 양서희 조은영 안효진 전병민 김대석 이민주 이주는 김옥진 송윤순 박미나 김장한 김배홍 김선영 유지상 장성운 김미옥 (주)두인기전 박동순 유은모 홍원희 김태홍 김호연 남용기 우성호 흥기봉 조영도 조경선 이진우 황인숙 김은숙 이정섭 정재민 조경애 박동필 정영숙 이덕자 정다운 권호정 서홍원 신동운 이경숙 최재화 이정남 김현 조재천 최홍석 임영배 최연호 김미희 강성률 김백영 도승연 손주영 조동일 권지현 조수경 김영규 허미경 김상봉 오혜영 변기영 이정환 이용수 장진숙 김혜정 양화숙 장현섭 김경영 김송새봄 김종태 유태영 유현영 강나영 이광일 장인옥 김혜영 (주)파워텍 이철희 김정일 이정아 이재웅 장철호 이소안 임남규 오명택 배승완 김금선 김영한 정종숙 김종원 최 숙 김양진 김범린 오세익 김영란 장일경 안주현 은종복 황선태 이선재 이예준 오호균 김현중 조정현 김영미 전병택 유일상 양상모 김혜숙 허인영 김예리 김혜정 정홍순 박은진 원정석 배영수 명보산업개발 선영비 신부순 김성희 김은경 박장식 채상병 황인명 이정선 김승진 유태구 박경호 경동하 임반석 오영진 이근행 안진희 김용남 임성희 전주란 박영현 최선자 이석운 유성희 형제수산 강태갑 허재호 최경아 이슬비 김도연 채서운 박홍식 구미숙 이은희 정문희 조은아 김혜림 조규석 김남수 김학규 이낙원 윤양수 장영순 안두용 이순화 양신영 양자영 구순자 문효선 조혜란 덕산LG주유소 정상인 박미향(일여스님) 선미식품 성상훈 권승호 김정라 박명란 박호성 서기를 신영희 김진태 유원유통(농산물) 성호종합주방 흥현일 정경훈 조미숙 김은미 이현준 김지영 송지은 최선주 김수진 김용섭 이성호 홍급자 손정현 김삼부 정영관 안미숙 황소연 이선애 문효선 이강욱 이경숙 김영경 최진웅 민병선 최영남 김종성 김만우 박상국 충주종합유통 고산사 주지스님(배장산) 이수미 구자민 최성철 양해동 이미경 공지환 정연경

제천간디학교지 계간 <간디IN> 2012년 가을 호(통권 24호) / 발행인 손진근 / 발행처 제천간디학교 / 편집장 안소현 / 담당교사 김정환 / 기자(학내) 최소은, 유현영, 한별, 하연, 장우정, 이기원, 김예림, 손재은, 최영규, 김민석, 안호원, 김은수 / 편집 및 제작 제천간디학교 / 발행일 2012년 11월 28일 /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신고리 92-3(우편번호 390-852) 전화 (043)643-5971 ~ 3 팩스 (043)653-5798 / http://gandhischool.org



더불어 행복한 사람 **간디학교** gandhischool.org

- *신영희님(03 오은교, 01 오창민 어머니)이 모시떡을, 이영재님이 두부 500모를, 흥원철물에서 파란색 간이의자를, 정응남(08정광 아버지)이 꽃게 2박스, 양미리 1박스를 후원해주셨습니다.
- *주변에 CMS 후원 가입을 권유해 주십시오. 기존 회원분들도 학교로 연락 주시면 추가 등록 없이 증액이 가능합니다. 가입은 학교 홈페이지의 'CMS 후원'란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연락 주시면 신청용지를 보내 드립니다.
- *이 밖에도 많은 도움들이 있었지만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함이 송구스럽습니다. 혹시 누락되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소 변경, 후원 사항 변경 등 후원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제천간디학교 살림터 043)653-5791/안혜진 010-5238-1563





일반관리

송영민 간디학교 교사

청년에 막 들어설 무렵, 선생님께 들었던 한마디를 지금도 기억한다.
'저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신문과 텔레비전을 보지 않습니다.'

다들 몸 관리할 나이란다. 그냥 살면 되지 하면 노년에 고생한다고.
어제는 쓸데없이 주위들은 얘기로 한 참 열변을 토했으나, 부질없음.
아침에 마른 목을 수도꼭지 막나온 물로 해장한다. 맛이 없다.

주섬주섬 긴팔 긴 바지 모자하나 키 자란 풀의 초가을 풀 뽑기.
이십분도 안 되어 줄줄 흐르는 땀, 헉헉 가쁜 숨에 마무리되는 노동 해장.
성급히 땀 씻어내자 몸에 겨우 들어온 내 정신, 반가움.

나하나 온전히 관리하기 어려운, 정신 놓고 살기가 더 쉬운 시절.
손끝에 힘주어 종이를 누르지 않아도, 나의 마음 신호 받은 전자기기들은
일사분란하게 희디흰 종이에 부탁받은 시(詩) 한 가락 주루룩 흘린다.

자동차, 모니터, 자동기계에 빼앗겼다 오랜만에 찾은 나의 시(詩)를
제 정신으로 보니 엉망이다. 이제 내 몸도 마음도 일반관리로는 안되겠다.



우웅 그러고 보니 난 이제 신입기자가 아니다~!!예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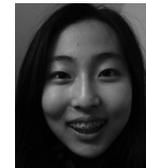
최형규(?학년) - 처음 글을 올렸네요.
페이지론..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죽는줄 알았습니다::



한 별(?학년) - 특별호 내고 나서 엄청 오랜만에 다시 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사설을 맡은 뒤로 마감도 많이 미루고 아쉬운 점도 많네요. 햇님언니 편집장하면서 너무 수고 많았고, 기사 빠릿빠릿 안내서 진짜 미안해!!!일상다반사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자!!



하한(?학년) - 이번 호 정말 불성실했던 것 같아요. 신입기자한테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호 부터 더 열심히 할게요. 이번 호는 특히나 신입기자들이 글을 잘 써줬어요.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임소현(?학년) - 후원인 만나 뵈었는데요. 인터뷰 내내도 너무 즐거웠고 1박2일 동안 정말 잘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호에서 성미산마을로 출장도 가고 즐거웠습니다. 편집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디인 만들 땀 힘든데 나온 거 보면 너무 뿌듯해요^-^



최햇님(돌아온 편집장 ㅎㅎ, ?학년) - 복학하자마자 가을호 편집장을 하라는 잔인한 일상다반사.....하 어찌겠어요. 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는데..... 이놈의 능력 때문에 피곤하다니까ㅋㅋㅋㅋ(죄송합니다.)

이번 호도 열심히 기사 써준 친구들, 데드라인 안 지킨 건 혼나야 되지만 그래도 다들 글 실력이 쑥쑥 느는 거 같아서 칭찬하고 싶어요.^_^ 다들 수고했고, 가을호도 예쁘게 잘 나오길 기대합니다~☺